

교회소식

- ▶ **환영:**
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
주일 예배는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드리됩니다.
- ▶ **행사:**
05/05/24 (주일): 교회 창립 49주년
05/12/24 (주일): 어머니주일,
제직회, 남/여선교회 월례회
- ▶ **감사:**
♥ 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신 김정목 집사님(생일)께 감사를 드립니다.
- ▶ **알림:**
◎ 오늘의 양식(3-5월): 배부합니다.
◎ 2024년 4월 글렌데일 코리안/벨리 매거진을 배부합니다.
- ▶ **합심기도 제목:**
 1. 새 가나안 장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
 2. 김왕중: 새로 시작한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 하소서
김예람: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새 가정위에 늘 함께 하시고,
축복이와 가족들이 늘 건강하게 하소서
 3. 이윤정권사님: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소서
 4. Mr. Bob Purcell: 건강하여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소서
 5. 하효경/지미경집사님:수술한 눈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소서

지난 주 헌금 드리신 분들	
십일조/주정/주일	이 천, 이크리стин, 이장욱, 이정혜, 이영식, 이은경, 김병권, 김명숙, 하효경, 이윤정, 김정목, 이노엘
감사헌금	

51권 17호 2024년 4월 28일

대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(PCIGA)

새 가나안 장로교회
NEW CANAAN PRESBYTERIAN CHURCH

2024년 교회 표어

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
네가 형통하리라

여호수아 1장 8절



담임목사: 이 천

시무장로: 이 장 욱

반주: 김 진 경

6338 N. Figueroa St. Los Angeles, CA 90042

☎ (323) 256-7575, www.ncnac.org

주일 예배

12:30PM

인도: 이 천목사

경배와 찬양		다함께
기원		인도자
※찬송	96장 (통 94장)	다함께
※성서교독	교독문15 시편 27편	다함께
※신앙고백	사도신경	다함께
찬송	540장 (통 219장)	다함께
대표기도		이정혜권사
오늘의 말씀	고린도전서 11:26~29	인도자
찬양		하효경집사
설교	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	이 천목사
기도		설교자
찬송	436장 (통 493장)1,4절	다함께
헌금		김명숙집사
※봉헌찬송	634장 (통 70장)	다함께
※봉헌기도		인도자
교회소식		인도자
※인사		다함께
※찬송	54장 (통 61장)	다함께
※축도		이 천목사

※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

봉사와 섬김					
#	구분	대표기도	찬양	헌금위원	친교
17	04/28/24	이정혜	하효경	김명숙	김정목
18	05/05/24	이장욱	성가대	지미경	교회 (창립기념)
19	05/12/24	하효경	이샘/이노엘	지미경	남선교회
20	05/19/24	김명숙	이장욱	하효경	
21	05/26/24	김병권			
22	06/02/24	이정혜			

교독문16 시편 28편

여호와야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

◎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

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

◎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

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

◎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

악독이 있나이다

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

◎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어

◎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

여호와야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

◎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

(다같이) 여호와야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. 아멘

성경말씀: 고린도전서 11:26~29

-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
-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
-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
- 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. 아멘